

| 공공기관위원회 |

임금 피크제 제도 개선·노동이사제 등 논의

구미현 전문위원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4월 23일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초기 도입 배경과 운영,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7차 전체회의(‘20.5.21.)에서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에 해당하는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에 대하여 논의했다. 노동이사제 추진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노동조합 추천사외이사제 시범 도입, 근로자이사회참관제 확대 실시 등에 대하여 논의했고, 윤리경영 강화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자정 노력,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사회적 경제·가치 관련 기본 3법 입법 재추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제8차 전체회의(‘20.6.23.)에서는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 관련 7차 전체회의에서 공감할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 요지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한 조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노정 간 입장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후에 회의를 마쳤다.

